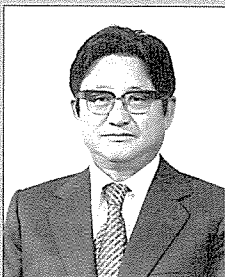


# 開城 상인

日帝 36년의 굴곡된 역사를 헤치고  
온갖 부당한 압력에도 홀로 맞서  
흔탁한 시류에 휩쓸리지 않았던 開城商人.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이번 비자금사건에도  
개성상인만은 끼지 않아 그 정신과 기개를  
다시 한번 우러러 보게 되었다.



馬景錫  
(한국엔지니어클럽 명예회장)

개성상인(開城商人)이라는 말을 처음 들은 것은 고향인 함북 경성(咸北 鏡城)에서 고등 보통학교를 다니던 시절이었으니 1930년대 후반이었다. 개성사람들은 절대로 일본인 상점에 가서 물건을 사는 일이 없고, 반드시 동포의 상점을 찾아간다는 것이다. 제 아무리 영악하고 능수능란한 일본 상인이라 하더라도 개성에는 발을 붙이지 못하고, 개성상인만이 그 곳

에는 그런 방법도 있구나 하고 자못 감격스러운 나머지 나는 개성이라는 곳을 찾아가 그 곳 사람들의 기백을 몸소 접하고 싶은 심정이 솟구쳤다. 그러나 2천리나 멀리 떨어져 있어, 서울조차도 가보지 못하는 처지에 그것은 이를 수 없는 꿈이기도 하였다.

## 서슬퍼런 日人 쿯대 꺾고

제2차 세계대전에 패망하기 직전, 일제는 우리 겨레의 얼을 완전히 말살해 버릴 생각으로 주(週)에 2시간의 조선어 수업마저 폐지하고 우리말 사용을 금하는 한편 일본어 상용(常用)과 창씨개명까지 강요하였으며 심지어는 징병·징용 등 최후의 발악을 서슴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렇다 할 저항 한번 못하고 그저 당하고만 있었다. 그럴수록 “개성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그 곳 사람들은 이렇게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지...”하는 생각이 들어 개성에 있는 송도고보(松都高普)로 전학이라도 해볼까 하는 이야기를 어머니께 하였다가 아버지께 호되게 야단을 맞은 일도 있었다.

일본이 무조건 항복하고 해방이 되어 나라가 38선으로 분단이 된 것도 모르고 단신 월남하여 고향하면서 1948년에 공대 화공과를 졸업하고 당시 거의 볼모지였던 우리나라의 산업현장에 투신하여, 오늘날 까지 47년간이나 우리나라 화학공업과 더불어 성장하였고 또한 늙었다. 그동안 성

의 상권(商權)을 독점하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비록 어린 나이였기는 하지만 일본인의 등살이 얼마나 심한지 잘 알고 있는 터에 그야말로 개성 사람들에게는 민족혼이 살아있음을 알려주는 자랑스러운 이야기였다. 서슬 퍼런 일본인의 쿯대를 꺾는 데

- |                        |               |                |
|------------------------|---------------|----------------|
| 1. Victor 蓄音器(日本)      | 2. 白頭林業(咸北)   | 3. 京城 鑛山專門學校   |
| 4. 朝鮮産業振興(永登浦)         | 5. 興南肥料(咸南)   | 6. 大同油脂(大邱)    |
| 7. 三共化學(大邱, 雙龍 前身)     | 8. 朝鮮製油(釜山)   | 9. LG化學(釜山)    |
| 10. 東洋化學(仁川)           | 11. 忠州肥料(忠北)  | 12. 麗水石油化學(全南) |
| 13. 大林엔지니어링            | 14. 三星엔지니어링   | 15. NuTech(美)  |
| 16. Pacific Nuclear(美) | 17. Vectra(美) | 18. 胡馬技術       |

격이 고약한 탓인지 아집이 센 탓인지, 어쨌든 나의 일생은 별표와 같이 17차례나 전직한 파랑의 연속이었으나 보람을 느끼면서 일을 하였다.

이렇게 여러번 전직을 한 이유는 기업주의 운영방침 혹은 부정을 수용할 수 없어 퇴직한 것이 7번이었고 일본 패망, 월남, 6.25동란, 북진, 피난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이 7번이었다. 퇴직하면 언제나 많은 자리가 나를 기다리고 있어서 나는 일생동안 한달의 실직기간도, 휴식시간도 없이 우리나라의 산업발전과 나의 가족을 위하여 봉사하였다.

아무튼 거듭되는 전직과정에서 나는 오늘날 우리 재계를 주름잡는 쌍용, LG화학, 동양화학, 대림, 삼성의 창업주 다섯분을 모셨고, 일찍이 나의 가슴에 야릇한 감회를 안겨주었던 이른바 '개성상인'이 경영하는 동양화학에 몸담은 적도 있었다. 이 기간동안 나는 개성상인은 비단 개성 사람들이 애향·애족(愛鄉·愛族)하는 도움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그 자체의 역량만으로도 충분히 일본 상인들을 물리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 중국 대륙까지 商圖 넓혀

개성은 고려 500년의 왕도이자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지였다. 이 시대에 개성상인은 국내 상권을 장악하였을 뿐 아니라 중국 대륙으로까지 육·해로를 통해 눈부신 상업활동을 전개하였다. 후에 조선조로 왕조가 바뀌어 왕도(王都)자리는 한성(漢城)으로 물려주었고 출세길이 막힌 권력층 지식인들이 상인 계층으로 대거 편입하게 되었다.

그들은 서양인들보다도 2백년이나

앞서 복식부기 방식을 도입하여 이른바 개성부기, 즉 4개다리 치부법(置簿法)을 개발하였다.

조선조의 쇄국정책에 따라 대외 무역의 길이 막혔고 공공용품 조달권도 한성 상인에게 빼앗기고 말았으나 그들은 결코 굴하지 않고 착실·근면·앞선 상술로 전국의 상권을 그들의 손안에 거머쥐기에 이르렀다. 상기(商機)를 재빨리 포착하고 이익을 취하는데 능하였으며 객주(客主)·도상(都商)·거간(居間)·좌상(座商)·행상(行商)·장군(場軍) 등으로 물샷틈이 없는 조직망을 전국에 펼쳤다. 이런 전통을 이어받은 개성상인이었기에 일본 상인도 감히 맞설 엄두를 못냈을 것이다. 해방 후 반세기가 지난 오늘날까지도 요란하게 걸치레하는 일 없이 내실을 다지며 건재하고 있다.

요즘 나는 '盧泰愚 비자금 사건'을 계기로 이 개성상인에 대해 다시금 새로운 감회에 젖는 것이 이 글을 쓰게 된 동기이다. 노태우는 비밀리에 기업들과 엄청나게 뒷거래를 하여 5천억원이나 비자금을 모았다. 그 충격적인 사건이 터지자 TV, 신문 등 모든 언론매체들이 그 보도에 얼마나 열을 올렸는지는 세인(世人)이 다 아는 바이다.

나는 TV를 뉴스와 스포츠 외에는 보지 않는 편인데 이번에 뇌물을 건네준 29개 재벌 총수들이 검찰로 호출되어 곤혹스러워 하며 출두하는 장면은 빠짐없이 눈여겨 보았다. 특히 내가 일찍이 모셨던 쌍용, LG., 삼성, 대림 총수들을 남다른 감회를 가지고 지켜보았는데 유독 개성출신인 동양화학李會林회장의 모습만은 눈에 띄지가 않았다.

11월 22일자 모 일간지 1면에 Top

News로 실린 뇌물을 바친 29개 재벌 이름과 금액순(2백50억원에서 5억원)으로 작성한 일람표에서 '동양'이 10억원으로 꼴찌에서 두번째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개성걱정이지...”라고 생각하면서 내용을 읽어보니 동양화학이 아니었다. “그러면 그렇지!” 하는 기쁜 마음을 가누지 못하고李회장께 전화를 하였더니 출근 전이라고 하기에李秀永부회장에게 전화를 돌려서 “오늘 일간지에 실린 뇌물을 바친 29개 재벌들중 꼴찌에서 두번째가 '동양'으로 되어 있어 동양화학인줄 알았는데 내용을 읽어보니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참으로 기쁘고 존경합니다. 아버님(李회장)께도 축하의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더니 이부회장이 “동양화학은 재벌에 끼지도 못합니다”라고 가볍게 받아 넘겼다.

### 비자금사건서도 진면목 부각

그리고 나서 다시금 29개 재벌들의 이름을 찬찬히 살펴봐도 개성상인은 끼어있지 않아 다시 한번 개성상인을 우려했다.

36년간 일본 식민지의 굴곡진 역사를 헤치고 온갖 부당한 압력에 홀로 맞서 혼탁한 시류에 휩쓸리지 않은 개성상인의 의연한 자세와 불굴의 기개는 이번 노태우 비자금 소동을 통해 그 진면목이 뚜렷하게 부각되었다. 그 자세, 그 기개야말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산업계와 과학기술계의 귀감이 아닐 수 없다. 우리 산업계와 과학기술계가 개성상인의 정신을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무장하여 내실있는 경제성장과 건전한 과학기술 발전을 이루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㉟